

철책선 근무 장병 위문 및 훈련병 세례



지난 10월 2일(토) 미국 유니온 신학교 총장 Blount 목사 일행과 박원호담임목사 등 11명이 동부전선 철책 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위문과 신병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에 세례를 주고 돌아왔다. 가철봉(1242m)은 155마일 전선에서 북한군과 마주하고 있는 초소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군 초소(GP)와는 7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접한 거리에 있다. 비무장지대의 관측을 마치고 가철봉 전망대 내에 있는 사병식당에서 장병들과 식사를 하였다. 일행 모두가 군

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특히 유니온 신학교 총장 사 모는 부대 음식이 식성에 맞았는지 두 번이나 음식을 가져다 식사를 하여 동석한 일행들의 박수(한국음식, 특히 군인들의 식사를 잘 먹는 것에 대한)를 받고, 소녀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순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점심 식사 후 북한군이 파 놓은 제 4땅굴을 보고, 세례 받기를 기다리는 훈련병들을 위해 신병교육대로 부지런히 달려갔다. 357명의 훈련병들이 자매 2명의 찬양과 울 동에 즐겁게 환호하고 있었다.

유니온 신학교 총장과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8명의 목사가 훈련병들 개개인에게 세례를 주고, 유니온 신학교 이사인 심영순 장로는 세례 받은병사들의 머리에서 흐르는 물을 닦아 주면서 친 아들을 바라보는 듯 사랑의 눈빛으로 병사들을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었다.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오래 간직할 것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군선교팀장 최경호〉

‘주님의 마음’ 사경회를 기대하며



가을이 오면 자연은 속마음이 드러나는 얼굴을 보여주고 생명을 더욱 번성케 하고자 품은 물기의 초록은 점차 빛을 잃어 버리고 사랑을 지탱시키고 사랑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심장의 정열이 마침내 밖으로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푸르름이 불타오르는 이 가을에 권사회에서는 10월 25,26 양일간 중예배실에서 열방대학의 기독교상담과 내적치유 교수이신 크리스티김 선교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가집니다. '주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진행되는 사경회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내면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교우님들 참여를 기대합니다.

〈신영숙 권사〉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운 하루 (송파 장애인 일일 아름다운 가을소풍)



10월 11일 (화) 한강 미사리조정 경기장에서 장애인 일일 아름다운 가을 소풍이 열렸

다.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 속에서 장애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모시고 서울개인택시 송파선교회 주관으로 주님의교회 후원으로 11개 장애인단체와 노인회에서 봉사자 포함 600여 명이 참가 하여 한마음 축제를 가졌다. 16년째 봄 가을마다 32번째 행사에 주님의교회 기관선교팀에서는 점심과 배식 봉사를 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 박원호 담임 목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기에 존귀한 길을 걷는다고 교회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세상 길을 걸어감으로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멀리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고 장애인 비장애인든 소외를 받은 사람이든 모두 한길을 걸어가자며 찾아 가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형섭 기자〉

추수감사절

허윤정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간 합줄함울에 좋은 책과 찬양음반을 추천해 드리는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 소개할 좋은 책을 고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좋은 찬양음반을 찾는 일은 더더욱 어

려운 일이었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음반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찾고 고르는 작업이 어려운 만큼, 좋은 음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보람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여성 찬양사역자 송정미의 6집 음반 <희망가>를 그렇게 큰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저의 기대를 훌쩍 넘어 한국 한국의 찬양이 정성스럽고 은혜가 넘쳐 음반을 들으며 이렇게 훌륭한 음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앨범에 담겨있는 곡들은 대부분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부르던 곡 그대로가 아니라 다양한 편곡을 통해 새롭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 음반에 실린 거의 모든 곡에는 국악기 연주가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 악기들과 서양악기들이 부딪침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려 풍성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 냅니다. 따뜻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송정미의 보컬과 서양악기들과 우리나라 악기들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 찬송가들로 가득한 이 앨범은 제목 그대로 듣는 우리들 가슴에 희망을 가득 불어 넣어 줍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의 조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열리는 다문화사랑 걷기대회의 한 순서로 송정미의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음반을 통해 그의 음악과 익숙해지면 콘서트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좋은 음악이 우리 삶에 희망이라는 선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박윤정 기자〉

안수집사 인사말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0월 3일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안수집사회 15기 회장으로 부름받은 안수집사이 열 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많은 부담을 안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수집사회 회원은 9월말 현재 138명 입니다. 주안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 서약한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모두가 우리 주님의교회 여러 부서와 사역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회 사역이나 행사에는 안수집사회의 연대감이 부족한 것과 술선수범하는 헌신된 모습을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우선 안수집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해 회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적 교제를 중심으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알게 하는 일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조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규모와 지역적 인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간과되기 쉬운 부분을 찾아 보고, 건전한 대안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안수집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수집사회에서는 제직부서의 사역과 별도의 중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교회의 목회방향과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제직부서간 소통과 협력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회가 우리 교회의 건전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원들부터 술선수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집사회 회장 이 열〉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_ 시편 136 : 1

통 권 제 272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0년 10월 17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_ 롬 12:5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기도의 과실이 알알이 쌓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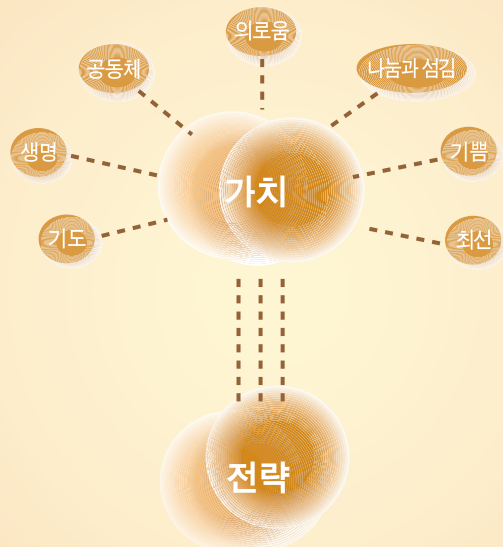
_중보기도사역팀수련회에서

지난 10월 7일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렸던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수련회가 박원호 담임목사님을 비롯 120명의 기도하는 용사들의 뜨거운 성회가 곧지암 잠실교회 수양관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출발할 때부터 감사함과 기대감으로 충만했다. 잠실교회 수양관은 서울에서 40분 정도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편리함과 도심에서 벗어난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임경순전도사님의 인도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박원호 목사님께서 시편40편 말씀을 주시며 “주를 찾는 자는 다 주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께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40편 16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교회의 당면한 기도

제목들과 교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점심식사 후 팀별로 모여서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산책도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유성훈목사님 인도하심으로 찬양기도회를 한 후 박혜성목사님께서 중보기도사역의 중요성과 사역자들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중보기도사역팀장 장계영 권사〉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1. 체계적인 말씀사역
2. 선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활성화
3. 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만들기
4. 교회 지원과 개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5.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
6.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교육과 청소년 집중 사역
7. 통합적 환경 복지 사역

주간 목회력

10.18~20(월~수)	평양노회
10.20 (수)	3/4분기 제직회
10.23 (토)	제2회 '다문화사랑' 걷기대회
10.24 (주일)	추수감사주일 쌀나눔행사
10.25,26(월,화)	권사회 사경회

안수집사회 15기 출범

안수집사회에서는 10월 3일 정기 총회가 열렸다. '충성하라 죽도록' 찬송을

부른 후 이강찬 목사는 '초대교회의 첫 안수집사님'의 말씀을 통해 집사들의 책임과 소명에 더욱 열심을 쏟아달라고 하며 교회 사역에 구경꾼이 되지 말기를 부탁 하였다. 15기 신임 회장으로 이열 안수집사가 선출 되었다.



■ 회 장: 이 열 ■ 부회장: 장득순
■ 총 무: 김은성 ■ 서 기: 이병직
■ 회 계: 이진걸

간증 / 아프리카에서 옴을 만나다	2면
늘푸른대학 성경필사 후기	3면
장병위문 / 권사회 사경회 / 장애인기울소풍 외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고 물으시면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사찰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과 새벽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시던 할머니 모습이 생각납니다. 기독교 재단 중, 고등학교를 다니며, 채플 수업에 시험을 보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 즈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도 가졌었습니다. 대학시절 아가페라는 기독교 서클에 참여하며, 말씀 듣고 교제하는 시간들은 괜찮았지만, 내 자신이 아웃사이더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활동은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성장 과정에 막연히 진리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내와 결혼하였고, 아내와 아이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 다. 언젠가 아내로부터 중보기도 제목이 제가 교회에 같이 나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막연히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우연히 근처 교회를 연습실로 사용하는 색소폰 동호회에 가입하여, 음악과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발표 연주회도 하고 여러 교회행사 때 초청도 받았습니 다. 그 때 만난 믿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실로 이사 온 후 가족들이 출석할 교회를 찾던 중, 아내가 교회에 같이 나가자는 권고를 하여 주님의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믿음생활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 이해심을 키우고 있습

“여러분의 이제껏 삶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십니까?”라는 질문 받고서 웬지 모르게 가슴 속에 벅찬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 다.

니다. 원수의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을 통해 내 가슴에 품고 있는 크고 작은 미움의 싹을 볼 수 있었습니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란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의 덧없음과 탐욕의 삶이 주는 허망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믿음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에 이러한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은 매주 주일 설교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주에 고민하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어느 주일인가 예배시간 후 주방봉사자 모집 광고를 보고 우연치 않게 큰아이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찝찝이 참여하겠노라 말씀드렸지만 매주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며 많은 귀감이 되었고, 오히려 서툰 일손이지만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고

서서 기쁘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 새신자양육을 받으며 주님의교회를 섬겨야겠다는 뜻을 세웠습니 다. 처음에는 담담한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첫 시간 “여러분의 이제껏 삶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질문 받고서 웬지 모르게 가슴 속에 벅찬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 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각기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의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모임을 인도 해주신 양육리더 집사님의 역량과 적절한 경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면서도 세심한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바라며, 이런 변화의 과정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 많은 믿음 없는 영혼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3교구 강대수>

폴레 폴레, 하쿠나 마티다 _350만년 전 원 인류의 땅, 아프리카에서 옴을 만나다

워즈워드(Wordsworth)는 「이른 봄에 쓴 시」에서 자연이 새 봄을 찬양하는 환희의 찬가를 들으며,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이 슬프다”고 비감한 심정을 노래한다. 사람을 톤(ton)으로 팔아넘겼다는 노예사냥, 에이즈환자의 행한 눈자위, 몇 년씩 지속되는 가뭄, 갈라터진 강바닥을 파낸 웅덩이에 고인 물을 퍼 담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종족유혈 갈등에 집과 부모를 잃고 양상한 갈비뼈에 살기죽이 들뜬 부랑병 어린이들, 아프리카에 대한 이러저런 보도 자료를 대할 때마다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이 슬플 수밖에! 7월 31일 인천공항을 출발, 9월 3일에 돌아오기까지 달포에 걸친 트럭킹(Truck을 2층으로 개조, 아래층엔 취사도구, 야전의자, 물탱크를 싣고, 2층에 좌석설치, 나무그늘에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해결, 비포장, 포장 할 것없이 천정부지로 뛰는 트럭을 타고 야생동물을 찾아 이동하는 오지여행). 지평선까지 동물이 가득한 케냐의 마사이마라와 수십만 마리의 홍학이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는 나쿠루호수를 필두로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공 등의 대초원(Savanna)에서 아프리카의 Big Five라는 사자, 표범, 코뿔소, 들소, 코끼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류와 영양, 누(gnu/ wildbeest), 얼룩말, 하마, 악어 등을 만났다. 아프리카인들이 즐겨 쓰는 말 ‘폴레 폴레(천천히 천천히)’ ‘하쿠나 마타타(괜찮아, 다 잘 될 거야)’는 대초원(Savanna)의 주인인 사자, 기린, 코끼리, 얼룩말 등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그들의 품성에서 배운 지혜가 아닐까. 사파리 차가 근접해



도 사자는 유유히 짹짹기를, 길을 건너던 얼룩말은 사람구경을, 들소는 숫제 차를 유도하듯 앞장서서 폴레 폴레, 나뭇잎을 따먹던 기린은 아예 사파리 차 가까이로 우아하게 걸어 나와 포토제닉의 면모를 과시한다. 그에 비하면 인간들의 조급증과 물욕은 얼마나 지리멸렬하고 불품없고 허망한지! 잠비아의 리빙스톤타운과 짐바브웨의 빅토리아폴타운의 경계를 이루는 빅토리아 폭포, 잠베지강이 대지구대(Great Lift Valley)의 단면 폭 1,7km의 낭떠러지를 천길 곤두박질치는 천둥소리와 500m 이상 물기둥이 솟구치며 무지개가 입수하는 빅토리아폭포, 하여 원주민들은 이 폭포를 “천둥치는 운무, Mosi-oa-Tunya”라 부른다. 여명의 해돋이에 다시 찾아간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장엄한 작품. 해가 떠오르면서 점점 선명해지는 쌍무지개! 그 앞에서 한날 먼지처럼 저열한 내 영혼은 외경감에 떨며 초월적인 힘을 느꼈다.

노아(Noah)에게 하신 무지개약속과 가족과 재물을 모두 잃고 젓터미에 앉아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난 부스럼을 토기조각으로 긁으며, 의롭게 살았음에도 고통받아야하는 부당함을 따지는 욥(Job)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났다. “땅의 기초를 다질 때, 측량줄로 그 크기를 정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일이 네 뜻대로 되지 않거나 우주의 논리를 헤아릴 수 없을 때 눈을 들어 광대한 자연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고.... 소갈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보라고,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못 같고 그 갈비뼈는 철장 같으니 그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으뜸이라고....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다”고 욥을 위안하시던 그 음성이 운무의 천둥소리 가운데 들리는 듯하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고대 문명과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능력에 경탄했다면, 이번 동남아프리카의 대자연과 동물왕국 앞에서는 내면에서부터 울려오는 인간실존의 지극히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는 욥처럼,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변박)하오리까 손으로 내입을 가리”고 땅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3교구 (뉴에디리) 이희숙>

늘푸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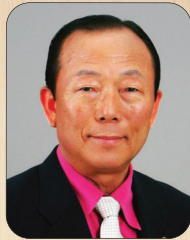
성경을 필사할수있어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동안, 늘푸른대학도 방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늘푸른대학의 어르신들은 그 기간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늘푸른대학에서는 방학기간동안 구약 중 창세기를 필사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7~8월 두 달 동안이었습니다. 늘푸른대학 전체 인원 118명 중에서 67명이 창세기 필사를 완필하셨습니다. 2학기 개강과 함께, 완필하신 창세기 필사본은 책으로 제본하여 드렸으며, 조그마한 시상도 하면서 성경쓰기와 함께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필사를 하시면서 각자 받은 은혜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4편의 소감문을 함께 실었습니다.

〈조광민 목사〉



하모니카반_송기순 집사



성경을 쓸수록 은혜 충만...

2010년이 시작되며 겨울이 끝나갈 무렵 노년의 여유를 배움으로 채울 수 있는 늘푸른 대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입학한 지도 벌써 두 학기가 되어간다.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정성껏 준비해주신 점심 식사

후엔 노후의 경제, 건강관리, 취미생활에 대한 알찬 정보를 얻게 되는 화요일 하루는 마냥 즐겁기만 하다.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하나 배워보고 싶었기에 하모니카반에 등록을 하였다. 들고 마시고 들고 마시며 음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한 묘미가 있다. '학교 종이 땡땡'으로 시작해서 요즘은 '클레멘타인', '나훈아의' 사랑 까지 배움의 영역이 넓어졌다. 한번은 새벽운동을 하러 가서 '클레멘타인'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북한에 고향을 둔 팔십이 넘는 어르신께서 나의 연주를 들으시고는 고향 생각이 난다 하시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셨다.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성경 필사 과제가 주어졌다. 창세기부터 써내려 가기 시작하였는데, 아내와 손자가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에 열심히 하다 보니 십 여일 만에 받아온 용지를 모두 사용하였다. 일곱 번에 걸쳐 교무처에서 새 용지를 받아 성경을 쓰면서 내 마음엔 은혜가 충만해지고 나를 보는 가족들은 기쁨이 가득하여 우리 집은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었다.

잠에서 깨어 첫 시간을 성경과 함께하고 늦은 밤까지 성경을 쓰면서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하여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성경 전체를 쓰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말았다. 평소 입버릇처럼 나는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삶에 즐거운 변화를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이런 결심은 태풍 곤파스도 막지 못했다. 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 새벽 베란다 문을 급하게 닫다가 손가락을 다쳐 응급실에서 일곱 바늘을 꿰맸지만, 그 다친 손으로 성경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여름방학동안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쓰기를 마쳤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 주님과 동행하며 지낸 그 시간들을 통해 변화된 나의 모습에 스스로 놀랍고, 또한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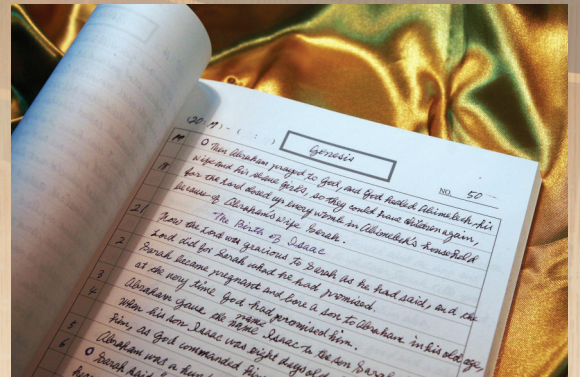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성경말씀에 다가 갈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신 주님의 교회 늘푸른 대학에 감사하며, 너무 부족한 저에게 항상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귀한 말씀을 먹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반_이 기 성도



창세기를 쓰고 나서 ...요한 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와 함



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쉽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동안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눈길,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말씀이 꿀 송이 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 말씀을 쓰는 동안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고 그 날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였고 삶의 질서가 정연했습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제 삶에 주어진 행복한 시간이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노년에 평안과 형통함을 주셔서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복된 시간이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읽기반_황증자 권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를 다 쓸 수 있었다. 처음엔 망설이고 걱정되며 내가 과연 다 쓸 수 있을까 생각도 하였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니 말씀 가운데 주님과 만남이 새로워지고 나에게 주신 시간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말

씀을 씬으로써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나에게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늘푸른 대학을 통하여 삶의 보람과 만족함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붓글씨반_이종국 성도



나에게 또 한 번의 행운의 기회가 왔다. 2008년에 성경 친구약을 약 5년에 걸쳐 필사를 하였다. 성경을 두 번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창세기를 다시 쓰면서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되새기게 되었고 새로운 은혜가 되었다.

특히 쓰기를 포기하였다가 약 20여일 앞두고 도전하여 쓰기를 다 한 집사람(황증자 권사)이 참으로 큰 은혜로 생각한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둘이 함께 경쟁하듯 어디까지 썼는지 확인하면서 성경을 쓴 시간이 참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